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구정 연휴기간 지역별 상권 활력 되찾아

- 중국 춘절(구정) 연휴기간 지역별 상권마다 쇼핑, 외식, 오락을 즐기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음
- 저장성 닝보시의 백화점들은 구정 연휴기간 판촉 이벤트로 손님을 끌었으며,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상품은 금, 액세서리, 주얼리 등으로 나타남
- 선전시는 구정 연휴기간 요식업 분야에서 쓸 수 있는 2억 위안(한화 약 366억 원) 규모의 디지털 위안화 홍bao(红包)를 발급하였으며, 중점 상권의 고객과 매출이 각각 27%, 21% 증가세를 보임
- 구정 연휴기간(1/21~25일, 첫 5일간) 하이난성 12개 리다오 면세점의 매출 총액은 2022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6억 8,500만 위안(약 3,080억원)으로 일평균 매출이 3억 위안(약 548억원)에 달함

자료원 : CCTV

http://www.ce.cn/xwzx/gnsz/gdxw/202301/27/t20230127_38362298.shtml

2 中, 구정 연휴기간 관광객 3억 명...전년 동기대비 23.1% 증가

-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구정 연휴기간 국내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23.1% 증가한 3억 800만 명으로 2019년의 88.6%로 회복, 관광 수입은 30% 증가한 3,758억 위안(약 69조 원)으로 2019년의 73.1%로 회복됨. 정상 개방한 A급 관광지 1만 739개로 전국의 73.5%를 차지함
- 구정 연휴기간 장거리 관광이 회복되었으며 관광사이트 페이주(飞猪)에 따르면 구정 연휴기간 장거리 관광 주문량이 전년 동기대비 500% 증가했고 항공권과 기차 티켓 주문량이 각각 40%, 80% 증가함
- 투자(途家) 민박사이트에 따르면 다리(大理), 충칭, 청두, 샤먼, 리장 등지의 민박 주문량이 증가하고 평균 투숙기간은 2.3일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달성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영수증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여행사 및 관련 서비스업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3배 증가하여 2019년의 80.7%를 회복하였고,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경제형 호텔 매출이 각각 16.4%, 30.6% 증가하여 2019년의 73.4%, 79.9%로 회복함. 민박업은 차별화 서비스로 관광객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매출이 74.2% 증가함
- 한편 베이징, 상하이, 광둥, 후베이 등 19개 성·시에 소재한 900여개의 박물관에서 2,200여 건의 전시 이벤트를 개최하였음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xwzx/gnsz/gdxw/202301/28/t20230128_38362347.shtml

3 中, 구정 연휴기간 영화 흥행수입 67억 위안(한화 약 1.2조원) 달성

- 중국 춘절(구정) 연휴기간 영화 흥행수입은 67억 위안(한화 약 1.2조 원)으로 2021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였고 관람객수는 1억 명으로 집계됨
- 1월 22일 기준 운영 중인 영화관은 1만 1,544개소로 지난해 동기의 98%로 회복되었으며, 1월 27일 15시까지 회당 관람객은 47명으로 2022년 구정 기간보다 10명 이상 증가했음
- 업계 전문가는 현재 영업 중인 1만 여개 영화관은 구정에 개봉한 영화로 양호한 수입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신작 영화 소비는 정월 한 달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CCTV재경

http://www.ce.cn/xwzx/gnsz/gdxw/202301/28/t20230128_38362737.shtml

4 中, 2022년 GDP 120조 위안(한화 약 2경 원) 돌파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GDP는 3.0% 성장한 121조 207억 위안(한화 약 2경 2,125조 원)으로 집계됨
- 중국의 GDP는 2020년, 2021년 각각 100조 위안(약 1경 8,274조 원), 110조 위안(약 2경 101조 원)을 돌파한 후 2022년 120조 위안(약 2경 1,929조원)을 넘어서며 새로운 단계로 도약함
- 2022년 중국의 GDP를 달러로 환산시 18조 달러로 세계 2위를 유지했으며,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8만 5,698위안(약 1,566만 원), 연평균 환율로 계산시 1만 2,741달러로 2년 연속 1.2만 달러 이상을 달성함

- 1차, 2차, 3차 산업 부가가치는 각각 4.1%, 3.8%, 2.3% 증가했고, 분기별 GDP는 각각 4.8%(1분기), 0.4%(2분기), 3.9%(3분기) 2.9%(4분기) 성장함
-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0% 상승했고 상품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27.2%로 제고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1/18/content_25960304.htm

5 中, 2022년 외자이용액 1,891달러로 안정적 증가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외자이용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조 2,327억 위안(약 225조 원)으로 집계됨(*달러로 계산시 8% 증가한 1,891억 달러)
- 외자유치 구조가 최적화되는 추세로 제조업의 외자이용액은 46.1% 증가한 3,237억 위안(약 59조 원)으로 전국 외자이용액의 26.3%(2021년 대비 7.8%p 상승)를 차지함
- 국가별로는 한국, 독일, 영국의 대중 투자가 각각 64.2%, 52.9%, 40.7% 증가, 지역별로는 EU, '일대일로' 연선국가, 아세안 등지의 대중 투자가 각각 92.7%, 17.2%, 8.2% 증가함
- 중서부 지역의 외자유치가 안정적인 성장세로 중부, 서부 지역의 외자이용액이 각각 21.9%, 14.1% 증가하여 전국 평균 수준을 각각 15.6%p, 7.8%p 상회함
- 대형 프로젝트의 견인 역할이 제고되었으며 대형 프로젝트(계약금액 1억 달러 이상)에 대한 실제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6,535억 위안(약 119조 원)으로 집계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3-01/19/content_25960480.htm

6 中, 2022년 택배 업무량 1,106억 건..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 80건

- 중국 우정국에 따르면 2022년 택배 업무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105억 8,000만 건으로 택배 업무량이 9년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함
- 택배 수입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600억 위안(한화 약 194조 원)에 달했고, 일간 최대 택배 업무량은 7억 건,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은 80건으로 집계됨

- 택배업은 생산 및 소비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택배 업무량은 중국 시장의 막강한 소비력을 반영해 주고 있음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review/chanjingpinglun/2023-01-20/A1674146207626.html>

7 中, 2022년 자동차 수출 300만 대 돌파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량은 전년 대비 54.4% 증가한 311만 대로 300만 대를 돌파함
- 신에너지차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 2022년 승용차 수출량은 56.7% 증가한 253만 대, 상용차 수출량은 44.9% 증가한 58만 대로 집계됨.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1.2배 증가한 68만 대이며, 이 중 11월 수출량이 전월 대비 5.5% 증가한 15.3만 대에 달했음
- 신에너지차의 해외 수출로 유럽과 북미 2대 지역에 대한 자동차 수출량이 증가함.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2년 1~11월 기준 10대 자동차 수출 대상국 중 아랍에미리트, 멕시코에 대한 수출량이 각각 2.7배, 1.6배 증가함. 신에너지차 3대 수출 대상국은 벨기에, 영국, 필리핀으로 나타남

자료원 : 광명망

<https://m.gmw.cn/baijia/2023-01/28/36323718.html>

8 베이징시, 2022년 수출입 19.7% 증가...수출입 증가 기여도 전국 1위

- 베이징시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베이징시의 수출입 규모는 전년 대비 19.7% 증가한 3조 6,400억 위안(한화 약 665조 원)으로 전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달했음
- 한편 전국 수출입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19.9%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22년 수입과 수출 통관시간은 각각 25.53시간, 0.57시간으로 역대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었음. 베이징시는 통관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함
- 구정 연휴기간에 체리 등 수입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자 수도공항 해관은 신선제품과 설맞이 물품 전용 통관창구를 운영하여 '7×24'시간 통관 수요를 보장하였음

자료원 : 베이징일보

<https://finance.sina.cn/2023-01-29/detail-imycuwmw0128656.d.html>

9 中, 2022년 GDP 상위 10개 도시 발표

- 최근 일부 도시들이 지난해 GDP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 GDP 10위권 도시로는 상하이, 베이징, 선전, 충칭, 광저우, 쑤저우, 청두, 우한, 항저우, 난징으로 나타남
- 상하이시와 베이징시는 GDP가 4조 위안(한화 약 731조 원) 이상인 2대 도시임. 상하이시 GDP는 4조 4,653억 위안(약 816조원)으로 지난해 비록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1위를 달성하였고 베이징시의 GDP는 0.7% 성장한 4조 1,611억 위안(약 760조 원)으로 집계됨
- 충칭시 GDP는 2조 9,129억 위안(약 532조 원)으로 광저우시 2조 8,839억 위안(약 527조 원)을 290억 위안(약 5조 원) 상회하며 4위를 기록함. 충칭시는 인구, 기업수, 재정 면에서 우위를 보유하고 공업 규모도 광저우시를 능가하였음
 - 코로나19가 공업보다 서비스업에 미친 영향이 더 컸는데, 광저우시와 충칭시의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70%, 53%, 2차 산업 비중은 광저우시와 충칭시가 각각 27.4%, 40%로 충칭시가 코로나19의 여파를 더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남
- 항저우시 GDP는 1.5% 성장한 1조 8,753억 위안(약 343조 원), 우한시 GDP는 4.5% 성장한 1조 9,000억 위안(약 347조 원, 정부업무보고 기준)으로 우한시가 항저우시를 추월하였음
 - 우한시는 고등교육, 제조업, 교통 등 방면에서, 항저우시는 민영경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부지역의 우한시가 항저우시를 추월하고 전국 8위를 되찾은 것은 중부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2년 우한시에 신규 설립된 첨단기술 기업은 3,000개사,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11%에 달했음
- 난징시는 GDP가 1조 6,800억 위안(약 307조 원, 정부업무보고 기준)으로 톈진시의 1조 6,311억 위안(약 298조 원)을 추월하여 10위를 유지함. 청두시 GDP는 처음 2조 위안(약 365조 원)을 돌파한 2조 818억 위안(약 380조 원)을 달성하여 'GDP 2조 위안 클럽'의 도시가 7개로 증가하였음

자료원 : 36kr

<https://36kr.com/p/2108348553873541>